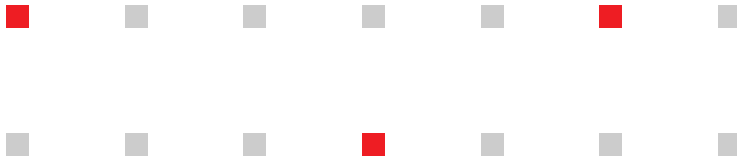




대중국특화프로젝트의 추진을 위한 전라북도의 중국유학생 교육의 허브화 방안



연구진 김 미 희 부연구위원 96jmj@jthink.kr

1. 전북도내 중국유학생 교육의 허브화 필요성
2. 중국유학생 현황 및 실태
3. 중국유학생의 전북도내 대학(교) 재학 현황
4. 중국유학생의 전북도내 유학 실태
5. 시사점과 제언



이슈브리핑 Issue Briefing

전북발전연구원 이슈브리핑 2011년 6월 27일 vol.45

발행처 : 전북발전연구원 | 발행인 : 원도연

주소 : 전북 전주시 완산구 전라감영로 57(중앙동 4가 1) TEL : 063)280-7100 FAX : 063)286-9206

※이슈브리핑에 수록된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로서 전라북도의 정책과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지난 호 이슈브리핑을 홈페이지 (www.jthink.kr)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C O N T E N T S

대중국특화프로젝트의 추진을 위한 전라북도의 중국유학생 교육의 허브화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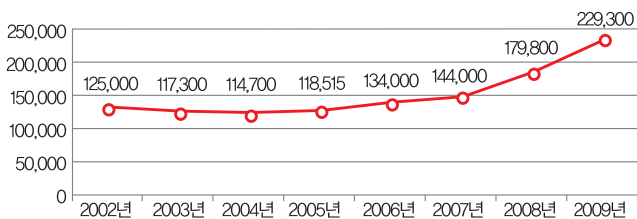


- 1. 전북도내 중국유학생 교육의 허브화 필요성 3
- 2. 중국유학생 현황 및 실태 4
- 3. 중국유학생의 전북도내 대학(교) 재학 현황 7
- 4. 중국유학생의 전북도내 유학 실태 9
- 5. 시사점과 제언 13

1. 전북도내 중국유학생 교육의 허브화 필요성

- ▶ 외국유학생 유치는 글로벌 인재양성은 물론 우호 및 지지기반을 확보, 그리고 자국내 경제적 이익을 창출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인식되고 있음
- ▶ 특히, 중국이 G2국가로 성장하면서 해외 유학생수가 계속 증가하고 세계 최대 유학생출국으로 부상하면서 각국의 중국유학생 유치에 대한 관심과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음
 - 2002년(125천명), 2004년(114.7천명), 2006년(134천명), 2008년(179.8천명), 그리고 2010년에는 약 3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됨.

[표1] 중국 해외유학 송출추이 (2002~2009)



*자료원 : 2010中國統計摘要

- ▶ 우리나라도 유학수지 적자개선과 유학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작년 2012년까지 유학생 10만명 유치를 목표로 유학생 수용환경 개선대책을 강구하고 유학생유치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음
 -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2010년 우리나라의 유학연수 적자는 44.5억 달러로 2000년 대비 그 규모가 5배 증가함.
- ▶ 현재 국내에 유학하고 있는 외국학생 중 중국유학생 수는 57,783명. 이는 전체 외국유학생의 68.9%로 단일국가의 유학생으로는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2010년 국내 유학중인 외국학생의 출신국은 중국(68.9%), 일본(4.6%), 미국(2.6%), 베트남(2.3%), 대만(1.7%), 몽골(4.0%), 기타(15.9%) 순임.
- ▶ 중국유학생은 국가적으로 보면 한·중간의 관계에서 향후 우리의 입장을 이해하거나 대변해 줄 수 있는 중요한 미래 인적 자원임.



▶ 동시에, 중국 전 지역에 걸쳐 한국에 오기 때문에 이들의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하여 새만금을 중국전역에 홍보하고 투자유치에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실질자산이라 할 수 있음

▶ 또한, 중국유학생을 유치함으로써 국가 또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큼. 중국유학생이 우리나라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는 3,734억원의 생산유발효과, 2,369억원의 부가가치 유발효과, 그리고 5662명의 고용 유발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됨.

▶ 특히, 전라북도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169억원의 생산유발효과, 112억원의 부가가치 유발효과, 그리고 316명의 고용 유발효과를 창출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그러나 앞서 언급했듯이 교육과학부는 “글로벌 교육서비스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외국유학생의 지역적 다변화를 추진하고 있음. 이를 역으로 생각하면 중국유학생에 대한 유치와 지원·관리가 소홀해질 수도 있다는 가정을 하게 함.

▶ 또한, 전라북도는 “새만금 대중국특화프로젝트”를 발표하여 다방면에서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나 아쉽게도 한·중 양국정부의 관심을 이끌어 낼만한 명분있는 프로젝트 개발이 미흡한 실정임

▶ 이에, 전라북도는 중국유학생의 잠재적 중요성을 인식하고 중국유학생 유치 및 지원관리를 강화하는 틈새전략을 수립하여 전라북도를 한국내 “중국유학생교육의 허브”로 특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마침 “새만금 대중국특화프로젝트”에 한·중유학생교

류의 허브를 구축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확대, 추진해야할 것임.

▶ 특히, 중국은 경제수준이 급격히 향상되면서 중국부모가 한 자녀에 대해 쏟는 애정과 관심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으며, 최상의 교육환경을 제공해주기 위하여 이민을 고려할 정도로 자녀의 해외 유학에 지대한 관심을 쏟고 있음.

• 중국초상은행의 <2011 중국부호 보고서>에 따르면, 1,000만위안 이상 개인자산보유자 중 60%이상이 자녀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시키기 위하여 해외투자이민을 결정하거나 고려 중이라 답변.

• 중국자본 유치를 위한 수단으로써 교육산업을 활용할 수 있음.

▶ 전라북도가 한·중 유학생 교류의 허브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중국에서 한국유학을 오려면 먼저 전라북도를 떠올리도록 해야함. 그러기 위해서는 유학의 질을 높이고 홍보를 강화하는 등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함

• 이를 위해서 유학생에 대한 교육과 생활의 질을 높이는 것이 선결되어야 하며, 동시에 전북도와 도내 대학이 연합하여 대중 홍보의 강도를 더욱 높여야 함.

▶ 이를 위한 전라북도의 중국유학생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정책의 재정립이 시급하며, 그에 따른 다각적인 검토가 요청되고 있음

2. 중국유학생 현황 및 실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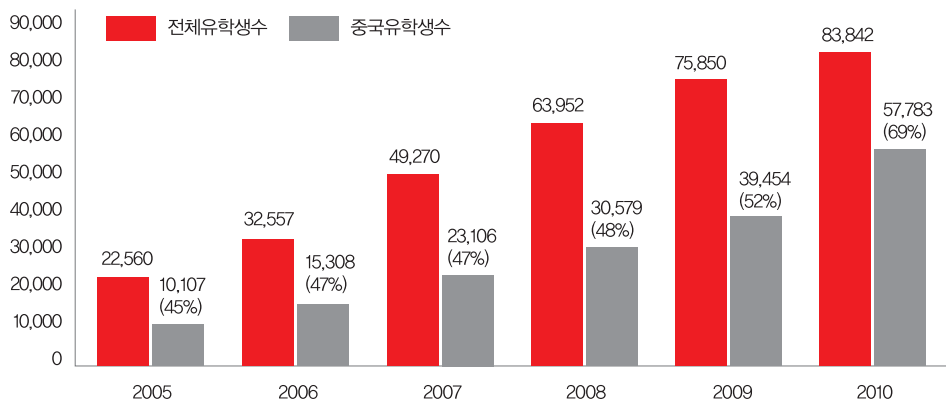
- ▶ 최근 우리나라에 유학중인 외국 학생수는 해마다 꾸준히 증가세를 보여 2005년 22,526명에서 2010년 83,842명으로 4배 증가함

• 국내 외국인유학생 수 : 22,526('05) → 49,270('07)
→ 75,850('08) → 83,842('09)

- ▶ 외국유학생의 출신국을 보면 아시아국가 출신 유학생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중국유학생이 차지하는 비중은 68.9%로 전체 외국유학생의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05년 중국 유학생수는 10,107명으로 전체 외국유학생의 44.9%를 차지하였으며, 5년이 지난 '10년에는 57,783명으로 약 5.7배 증가하고 전체 유학생의 68.9%를 차지함.

[그림1] 국내 재학중인 외국유학생 및 중국 유학생 증가추이(2005~2010)



※자료원 : 국립국제교육원, 2010국내 외국인 유학생 통계를 토대로 재구성

*괄호 안은 전체 유학생에서 중국유학생이 차지하는 비중

- ▶ 중국인 유학생수를 기준으로 국내 4년제 대학을 상위 30위로 순위를 정하여 지역별 분포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중국유학생의 46.6%가 서울소재 대학에 재학중이며, 대전·충남, 대구·경북이 그 뒤를 잇고 있음.

• 서울 13,777명, 대전·충남 2,677명, 대구·경북 2,450명, 그 외에 광주·전남, 전북, 부산, 충북, 인천 등의 순으로 나타남.

- ▶ 중국유학생이 급증한 주요원인은 대학의 국제적 인지도

제고와 신입생 모집난 타개를 위하여 국내 대학의 적극적인 신입생 유치노력, 그리고 한류로 인한 중국학생들의 한국에 대한 관심증가로 볼 수 있음

- 일부 지방대학은 중국현지에서 홍보활동을 하거나 대학간 자매결연을 통한 교환학생 형식으로 학생을 유치하고 있음.
- 중국 학생들은 한류에 따른 한국에 대한 호기심, 지리적 인접성, 상대적으로 저렴한 교육비, 중국내 취업시 유리한 조건 확보를 위하여 한국으로 유학을 오고 있음.

[표2] 국내 대학 중국인 유학생 현황 (2010. 4. 1. 기준)

순위	대학명	소재지	중국인 유학생 수						전체 외국인 유학생 수	
			합계	언어 연수	학사	대학원	기타 연수	비율	순위	합계
1	경희대	서울	2,316	484	1,444	336	52	66%	1	3,477
2	건국대	서울	1,944	277	1,105	224	339	79%	5	2,462
3	한양대	서울	1,534	319	926	257	32	77%	8	1,989
4	중앙대(서울)	서울	1,505	397	753	355	0	87%	9	1,714
5	상명대	천안	1,491	676	720	145	22	91%	10	1,632
6	성균관대	서울	1,425	188	903	300	34	57%	4	2,477
7	청주대	충북	1,342	136	1,083	91	32	95%	17	1,407
8	연세대	서울	1,223	634	302	277	10	35%	2	3,404
9	동국대	서울	1,087	130	790	145	22	79%	12	1,370
10	우석대	전북	1,019	98	838	83	0	97%	23	1,045
11	고려대	서울	970	466	140	298	64	46%	15	2,074
12	배재대	대전	949	138	589	116	106	86%	20	1,100
13	전북대	전북	938	50	492	250	146	74%	13	1,256
14	계명대	대구	928	69	780	72	7	81%	18	1,133
15	전남대	광주	877	193	481	189	14	77%	19	1,131
16	호남대	광주	870	11	751	47	61	99%	25	878
17	부산대	부산	829	125	448	147	9	80%	24	1,028
18	영남대	대구	798	120	583	171	54	72%	21	1,096
19	충남대	대전	754	192	273	276	13	71%	22	1,055
20	대구대	대구	724	77	557	69	21	82%	26	877
21	인하대	인천	704	133	379	148	44	58%	15	1,200
22	공주대	충남	673	124	447	77	25	80%	28	836
23	이화여대	서울	672	396	71	72	133	22%	3	3,033
24	순천향대	충남	665	64	506	43	52	87%	29	757
25	건양대	충남	585	42	505	28	10	96%	33	607
26	부산외대	부산	573	39	430	82	22	81%	30	702
27	신라대	부산	552	1	458	70	23	92%	35	600
28	서울대	서울	551	130	112	299	10	24%	6	2,238
29	한국외대	서울	550	214	222	57	57	47%	17	1,160
30	대불대	전남	528	0	472	56	0	99%	39	530

※자료원 : 전홍철, 중국인 유학생수의 변화추이로 본 동아시아 유학시장의 현황과 과제, 2011

* 본 통계자료와 [그림 2]의 전북소재대학의 통계자료는 조사시기와 조사방법의 차이에 의하여 상이할 수 있음.

▶ 중국유학생의 규모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지만 중국유학생들의 한국내 유학에 만족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특히 언어장애와 문화적 차이로 인하여 학교생활과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학교당국의 체계적인 지원과 관리가 부족하여 학교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안내, 도움, 자료이용 등 학사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받지 못함으로써 원활한 학사일정을 소화하지 못하고 있음.

▶ 또한, 대학들이 중국유학생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지 않으며 일부대학은 외국유학생 유치를 대학의 재정난 타개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관리감독이 소홀하고 이로 인하여 불법체류자가 발생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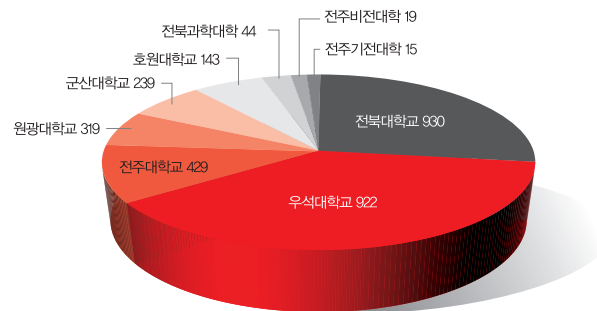
- 법무부 통계에 의하면, 2008년 전체 유학생 71,531명 가운데 11%인 8,465명이 불법체류자로 조사되었음. 우리나라 외국유학생의 대다수가 중국출신인 점을 감안할 때 불법체류 유학생 가운데 중국유학생이 상당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음.

3. 중국유학생의 전북도내 대학(교) 재학현황

▶ 전라북도에는 중국유학생이 3,060명 재학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 됨. 대다수의 중국학생이 전북대학교, 우석대학교 등을 비롯한 도내 9개 대학(교)에 재학중이며, 대부분 4년제 대학교에 재학중임.

- 기존에 알려진 도내 중국유학생수인 4,500명과는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과정별로 보면 어학연수과정인 5%명, 학부과정 71.37%, 석사과정 16.99%, 박사과정이 0.02%이며, 대부분의 중국학생이 자비로 유학을 오는 것으로 조사됨.



[그림2] 전북도내 대학 중국유학생 분포

▶ 중국학생이 재학하고 있는 대학(교)에는 국제교류부, 국제교류센터, 국제교육교류원 등 전체 유학생 학사관리 부서가 설치되어 있으나, 유학생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학생에 특화된 지원·관리는 없음.

- 관련부서의 담당자들은 중국유학생을 관리하는데 있어 인력부족, 언어소통문제, 출입국절차처리문제, 유학생유치 등 애로사항을 호소하고 있음.
- 한편, 중국유학생이 본교에서의 유학생활에 대한 만족도는 중 또는 중상으로 자체 평가하고 있었음.

▶ 외국유학생에 대한 장학금은 성적우수장학금, 교내봉사 장학금 등 대학(교)마다 외국유학생에 대한 다양한 장학금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특별히 중국유학생들에게 한정된 장학금제도는 없음.

▶ 중국학생들의 주요 출신지는 주로 중국 동부연안에 위치한 지역의 학생들이 대부분이고, 주요 유입경로는 대

학간 교류협정과 주변지인들의 추천에 따라 유학생이 도내로 유학을 오고 있음.

- 중국유학생의 주요 출신지는 산동성, 길림성, 강소성, 요령성 등 우리나라와 지리적으로 비교적 가까운 곳에서 위치한 지역에서 오고 있으며, 그 외 호북성, 복

건성, 귀주성, 하남성, 천진시 등 일부가 있음.

- 이들은 유입경로는 각 대학간 교류협정을 통한 교환 또는 편입의 형태가 가장 많고, 주변지인의 추천, 중국에서의 자체선발 및 인맥을 통하여 들어오는 것으로 조사됨.

[표3]도내 대학(교)별 중국유학생 관리현황 (2011. 6. 1. 기준)

학교명	전북대학교	우석대학교	원광대학교	전주대학교	군산대학교	호원대학교	전북과학대학	전주비전대학	전주기전대학
중국 유학생명	930	922	319	429	239	143	44	19	15
담당 부서명	국제교류부	국제교류센터	국제협력실	국제교육교류원	국제교류교육원	국제교류교육센터	국제교육원	국제교육원	유학생지원센터
중국 유학생 전담자명	유 (1)	유 (4)	유 (2)	유 (2)	유 (1)	유 (2)	유 (1)	유 (2)	유(2)
장학금 지급내용	외국인재학생, 입학첫학기, 대학교수재직자, 외국인가족, BK21사업참여 자, 지도교수프로젝트, WCU사업 참여자장학금	외국인(출신학교 별) 장학금 성적우수장학금 교내봉사장학금	성적우수장학금	외국인유학생 장학금	외국인유학생 장학금	성적우수장학금	외국인장학금	일반유학생 등 등록금의 30%, 특별유학생 등 등록금의 40% 해외선교유학생 등록금의 100%	성적장학금
관리상 애로사항	-	실생활계약 등의 어려움	-	학생의 잦은 연락처변동으로 소재 파악 어려움	전담직원부족, 의사소통 어려움, 호응도 부족	법률과 실무(출입국)간의 차이	-	외국인 유학생들의 유치	-
중국 유학생 주요 출신지	길림, 산둥, 요녕, 흑룡강, 허난, 호북, 귀주, 복경, 천진	산동성, 강소성, 복건성	산동성	산동성, 호북성, 기타성지역	산동성 (연태, 동영시), 천진시	사천성, 산동성, 강소성	산동성, 길림성, 요녕성, 강소성	길림성, 산동성, 료녕성	산동성, 길림성, 강소성, 요령성
유학경로	교환학생 수학 후 학과과정 진학, 주변 지인들의 추천, 인터넷 검색	현재교류협력 대학 협정서에 의거, 편입 또는 전학 (어학연수)	자체선발 (중국사무소)	청도지역, 황해학원, 빈해학원, 청도과기대학, 무한지역, 중남민족대학과의 MOU협정	자매대학 추천, 국내 타대학 출신자 지원 (대학원의 경우)	학교시스템, 인맥	현지면접	교류협정한 학교에서 추천, 현지 한국어교육센터 및 해외학교 관련자 추천	자비유학생

* 본 자료는 중국유학생이 재학하고 있는 도내 대학(교)에 서면조사를 실시하여 작성함.

4. 중국유학생의 전북도내 유학 실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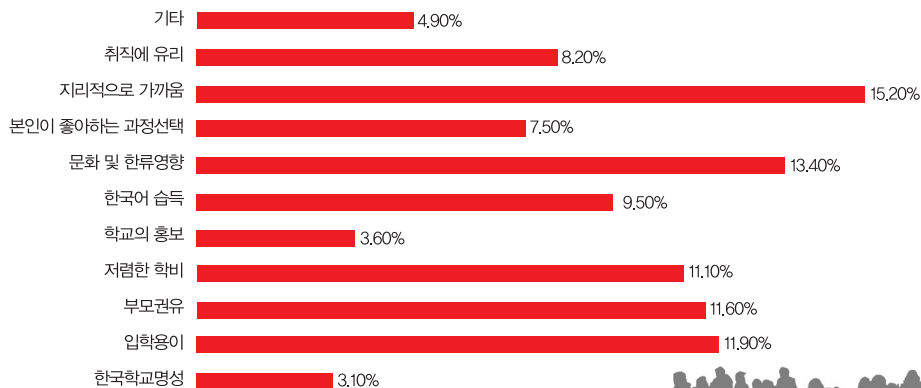
▶ 최근 도내 중국유학생들이 증가하고, 그들에 대한 지원과 관리가 요청되는 상황에서 중국학생들의 유학실태를 파악하고 필요한 조치를 제안하고자 도내 중국유학생 211명을 대상으로 표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음.

- 대상은 도내에 중국유학생이 가장 많이 재학하고 있는 전북대, 우석대, 전주대, 군산대 중국유학생을 대상으로 함.
- 주요 조사내용은 한국유학을 오게 된 경로와 원인, 학업 및 생활, 유학에 대한 만족도를 중심으로 이루어짐.

▶ 한국으로 유학지를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는 지리적으로 가깝기 때문이 15.2%로 가장 많았고, 문화 및 한류영향 13.4%, 입학이 용이해서, 부모의 권유, 저렴한 학비 등 한국으로 유학을 오게 된 이유라고 밝히고 있음

▶ 현재 다니고 있는 학교를 선택한 이유에서는 입학이 쉬워서와 학비가 저렴해서 선택했다는 답변이 가장 많았으며, 선택전공의 유망여부가 초기 학교 선택에 있어 크게 작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학교의 홍보 때문이라고 답한 학생도 9.4%에 불과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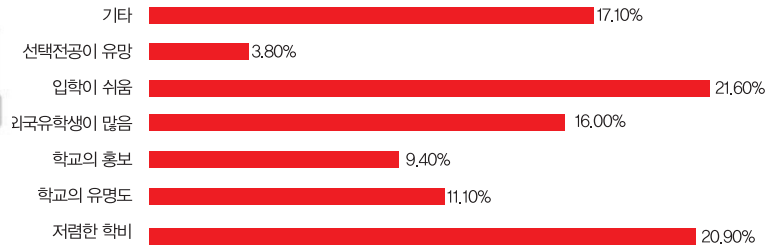


[그림3] 한국을 유학지로 선택한 이유

▶ 설문에 참가한 중국학생들의 성별은 남학생 101명, 여학생 110명이고 한족이 89.6%로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음. 출신지별로 보면 화동지역 출신이 67.3%로 가장 많고, 부모의 직업은 개인사업자가 39%와 38%로 가장 많으며 그 다음으로 공무원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여, 현지에서 1:1로 대학을 홍보하는 것이 노력에 비하여 효과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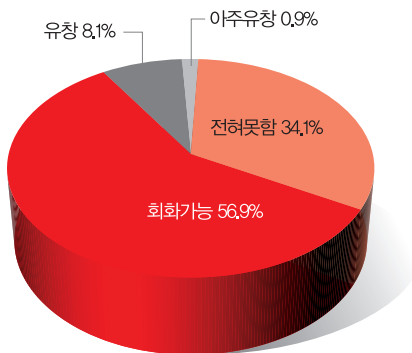
- 입학이 쉬워서 학교를 선택했다는 답변은 향후 복잡한 유학절차를 간소화시킨다면 더 많은 유학생을 유치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음.



[그림4] 현재 학교를 선택한 이유

▶ 유학생 생활 적응 정도에 대해서는 잘하고 있다 57.8%, 아주 잘하고 있다 37%로 94.8%의 학생들이 도내 유학생 생활에 큰 무리없이 적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현재 유학생 생활에 대한 만족도 질문에 대해서 아주 만족 16.6%, 보통 74.9%로 대체적으로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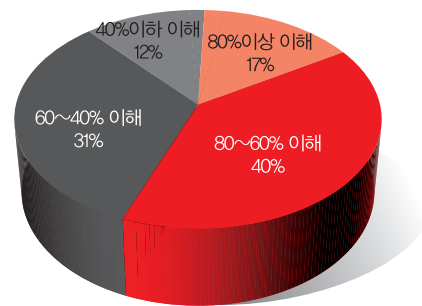
▶ 한국에 오기 전 한국어 구사능력면에서는 회화가 가능한 수준이 절반을 넘었으나, 전혀 못했다는 답변도 34.1%나 되어 입학 후 바로 전공강의에 들어갈 수 있는 언어실력은 대부분 갖추고 있지 못한 것 나타남



[그림5] 유학 전 한국어수준

▶ 또한, 현재 수강하고 있는 강의에 대한 이해도에서는 강의내용의 60%이상 알아듣는 사람이 57%이고, 60%이하

로 이해하는 학생이 43.8%로 답변하고 있어 강의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어 전공수업 이전에 한국어 교육이 더욱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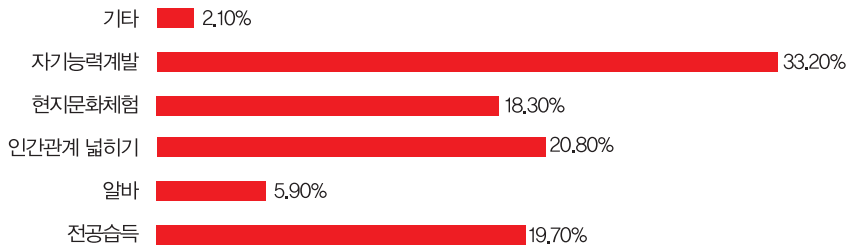


[그림6] 현재 수강하고 있는 강의에 대한 이해도

▶ 중국학생들의 반수 이상인 54%의 학생이 유학생 생활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은 자기능력계발과 전공습득이라고 답하였으며, 아르바이트라고 답한 학생은 소수에 불과했음.

- 아르바이트를 목적으로 한국유학을 선택한다는 기존의 중국인에 대한 우리들의 선입견이 전환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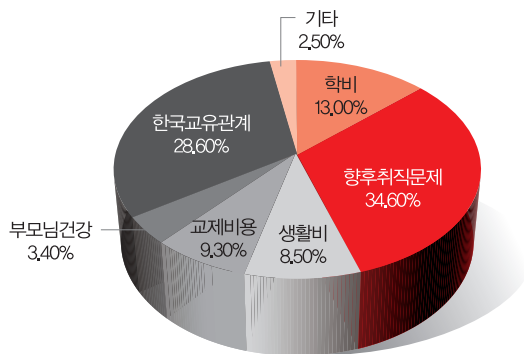
▶ 중국유학생의 당면과제 중 가장 큰 문제는 취업인 것으로 나타남. 현재 생각하는 가장 큰 애로사항과 담당교수와 상담을 하고 싶은 부분에 대하여 모두 졸업 후 진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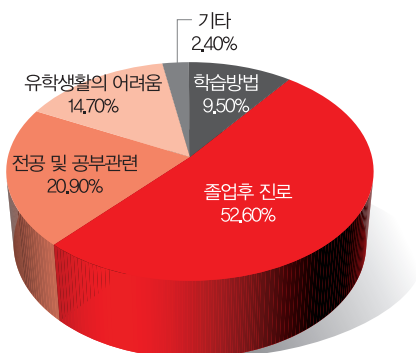
[그림7] 유학생들 중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

라고 답변하여 한국학생과 마찬가지로 취업이 가장 고민으로 나타남.

- 취업문제 외에 교우관계 28.6%를 애로사항으로 꼽고 있어서 한국 유학생들에서 한국 학생들과의 원활한 소통과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을 시사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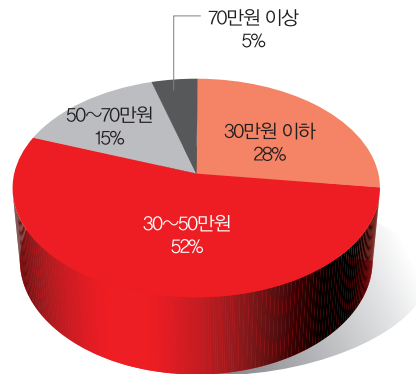
[그림8] 현재 느끼는 가장 큰 애로사항



[그림9] 학교관계자나 담당교수와 상담하고 싶은 부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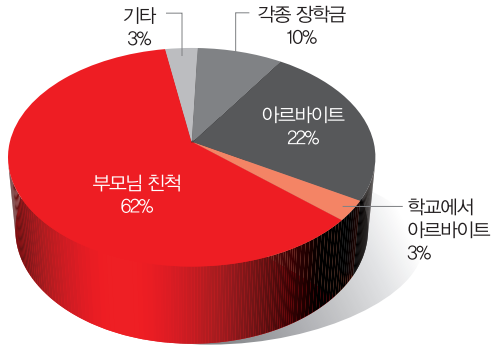
- 반면, 생활비와 학비에 대한 걱정이 소수를 차지하고 있어서 중국유학생들의 경제적 문제는 상대적으로 심각한 문제는 아닌 것으로 나타남.

- 중국유학생은 월평균 30~50만원을 지출(방값 제외)하는 학생들이 가장 많으며, 그 이상을 지출하는 학생도 상당수인 것으로 나타남. 중국의 “지우링허우(90년 이후 출생자)”는 경제적으로 비교적 풍요한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한국에서의 물가나 생활비가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분석됨



[그림10] 월 평균 지출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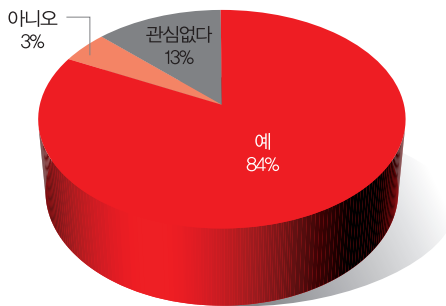
- 월평균 30만원 이상을 지출하는 학생이 72%에 이르고, 그 이하는 28%임.
- 생활비는 부모님에게서 받아쓴다는 답변이 62%이고, 아



[그림11] 생활비 총당 수단

르바이트를 통하여 총당한다는 답변은 25%에 불과했음.

- 실제로, 아르바이트를 하는 이유는 경제적인 곤란 때문이라기보다는 학업에 대한 흥미를 못 느끼고 학업 외적인 관심을 돌리다가 아르바이트에 고착화된다는 견해가 있음.



[그림12] 중국유학생 지원 전문기구 설치 필요

- ▶ 중국유학생들은 유학을 하며 부딪치는 어려움을 도와줄 수 있는 중국유학생 지원 전문기구의 설치를 절대적으로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전문기구의 필요성에 대하여 84.5%의 학생들이 필요하다고 답변하고 있으며, 필요하지 않다는 답변은 3%에 불과함



5. 시사점과 제안

▶ 이상과 같이 국내 및 도내 중국유학생들의 현황과 실태를 살펴보았음. 이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정리하여 보면,

1. 그동안 유학생에 대한 DB가 구축되지 못함으로 인해 이들과 연계한 인적자산 활용이 거의 없었음. 졸업생과 그의 부모에 대한 DB를 구축하고 이를 네트워크화하여 대중국특화프로젝트를 추진하는데 있어 주요한 인적자원으로 활용해야 할 것임

- 도내 유학생 부모의 직업이 개인사업자 또는 공무원이 대부분인 점을 활용하여 親韓·親全北 인사로 육성함으로써 자본유치, 관광객 유치 등에 경제적 이익과 연계할 수 있음.

2. 한·중간의 지리적 인접성은 양국간의 유학교류를 촉진하는 요인이 되며, 동부연안 지역 외에도 유학희망자가 산재해 있는 내륙으로 진출하여 블루오션을 개척할 수 있음

- 해를 거듭할수록 각 국별, 각 지역별, 각 대학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하나 아직까지 중국유학생 유치는 블루오션 영역임. 이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접근 필요.

3. 중국유학생의 도내 생활적응도는 비교적 높으나 학업성취도가 높지 않음. 이는 한국어수준이 낮기 때문으로 분석되며, 철저한 한국어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선행되어야 함.

- 입학에 필요한 한국어능력시험 4급을 통과하기 위하여 정식과정 입학 전 한국어교육과정을 반드시 이수

하도록 하고 과정 입학 후에도 지속적인 언어교육을 실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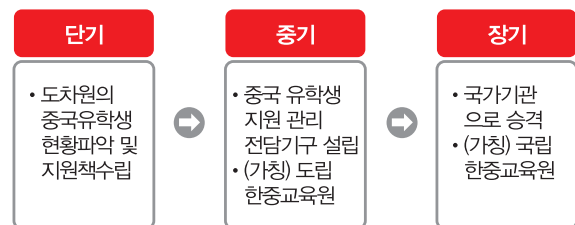
4. 한·중교류의 연장선상으로 중국유학생의 도내 졸업 후 취업을 위한 창업교육을 실시하여 전라북도를 매개로 하여 한·중간 무역 및 서비스산업의 진흥을 도모할 수 있음.

- 중국유학생의 가장 큰 당면과제인 취업문제를 해결하고, 전라북도와 연계한 사업아이템을 발굴하여 도내에서 유학했던 중국인은 전북도와 불가분의 관계를 형성하도록 함.

5. 중국유학생에 대한 선입견 전환 필요.

- 못 살고, 지저분한 나라라는 중국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버리고, 다문화사회를 지향하는 현 시점에서 글로벌마인드로 중국유학생에 대하여 보다 유연한 자세를 취해야함.

▶ 전라북도는 중국유학생이 미래는 물론 현재에도 활용 가능한 한·중간의 중요한 인적자원임을 인식하고, 새만금을 대중국 전진기지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한국내 “중국유학생 교육의 허브화”를 추진할 수 있는 중·장기 계획 수립을 아래와 같이 제안을 하고자 함.





1. 단기 전략 : 전북도 차원의 중국 유학생현황 파악 및 지원책 수립

- 전북도와 도내 대학이 연계하여 중국유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중국학생들이 유학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책을 개발하도록 함.
- 官-學이 연계하여 중국유학생 유치 확대를 위한 지원책을 발굴하고 이들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관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함.

2. 중기 전략 : 중국유학생 지원·관리 전담기구 “(가칭)한·중교육원” 설립

- 전국 최초로 중국유학생 지원 및 관리를 전담하는 “(가칭)한·중교육원”을 설립하여 한국내 한·중 유학교류의 허브를 실현하도록 함.
- 국제교류원 등 각 대학의 유학생관련 부서들과 연계하여 중국유학생에 대한 도내 유학의 정보제공, 유치, 입학, 졸업, 취업지원 등 유학에 관련된 전 과정에 대한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함.

- 특히, 도내 대학에 유학 중인 중국학생들의 주요한 유입경로가 자매결연 및 교류협정을 통하여 온 교환학생이 주종을 이룬다는 점에 주목하여 전북도가 적극적으로 중국의 대학과 도내 대학의 조인업을 주도하고 교환학생프로그램을 촉진하도록 함.
- 도내 출신 유학생에 대한 DB를 구축하고 이를 네트워킹화하고 상시 관리를 하고 전라북도의 대중국특화프로젝트 추진 등 한·중교류의 기본 자료로 활용하며, 향후 개척해야 할 유학생 유치의 블루오션을 개발에 활용하도록 함.
- 중국학생들이 생활과 학업 적응도를 높이고, 전라북도에서의 유학이 소기의 목적을 거둘 수 있도록 심적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상담센터를 운영하여 마음놓고 유학할 수 있는 유학하기 좋은 환경을 적극 조성하도록 함.
- 성공적인 유학을 위해 가장 필요로 하는 한국어능력을 향상을 위하여 한국어교육센터와 창업을 위한 비지니스센터, 자기계발을 위한 능력배양센터 등 단순히 유학생을 유치하고 관리하는데 그치지 않고 교육



문화사업을 추진하도록 함.

- 하지만, 대중국정책은 국가적 차원의 접근이 필요한 것으로서 전라북도만의 일방적인 사업추진보다는 우리정부와 중국정부가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여 그들의 관심과 협조를 끌어내어야 함.
- 이를 위하여 우선 전라북도의 단방향적인 추진이 아닌 중국교육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명실상부한 한·중교육의 허브가 될 수 있도록 중국 관계 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하도록 함. 중국의 대외한어 보급을 전담하는 중국교육부 산하 漢辦 및 공자아카데미와의 협력도 고려해볼만 함.

3. 장기 전략 : 국가기관으로 승격, “(가칭) 국립한·중 교육원” 유치

- 전라북도 도차원에서 출발한 (가칭)한·중교육원을 국가적 차원의 한·중교육교류의 중심으로 육성하도록 할 수 있도록 국책사업으로서 교육과학기술부 산하의 상설 기관으로 승격을 노력하고,
 - 현재 교육과학기술부 산하 국립국제교육원에서

전체유학생 관리 및 유치사업 등을 주관하고 있지만, 이와는 별도로 중앙차원의 중국유학생에 특화된 전문기구를 설립·운영함으로써 양국의 주요 협력사업으로 발전시켜나갈 수 있도록 함

- 이를 전라북도에 유치하여 전라북도가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대표 한·중유학교류의 허브로 자리 잡도록 함
- 그동안 타 지자체에서는 자기만의 독창적인 사업 아이템을 발굴하여 중국정부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이나 아쉽게도 전라북도에는 아직까지 한·중 정부의 관심을 이끌어 낼 명분 있는 프로젝트가 없었음
-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함. 양국간의 미래 글로벌인재 양성을 위한 전라북도의 한·중유학교류의 허브화는 한·중 양국간 교육교류, 청소년교류, 경제교류 등 다방면의 교류를 촉진할 수 있는 명분과 실리를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프로젝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와 추진이 수반되어야 할 것임



전북발전연구원

560-014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전라감영로 57(중양동 4가 1번지)
Tel. 063-280-7100 Fax. 063-286-9206
www.jthink.kr